

텍스트 속의 은유

- 텍스트 내에서 은유를 인식하는 방식 -

이 소 영 (경기대)

I. 들어가기

매년 입시철이면 어김없이 수험장이 있는 학교나 기관마다 단힌 교문 앞에서 엿을 붙이고 있는 학부모를 볼 수 있던 때가 있었다. 대학이 선발권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해당 대학에서 시험을 치루는 학생들이 그 대학에 엿처럼 철썩 붙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리라 짐작되는 이 풍속은 시험제도가 바뀌어서 자녀가 합격하기를 바라는 해당 대학에서 시험을 보지 않게 되었어도 마찬가지로 한동안 계속되었다. 엿을 붙인다는 행위가 입학시험에 ‘붙는다’, 지원 대학에 ‘붙는다’는 말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는 이유로, 혹은 아마도 어원이 같다는 이유로 행위를 통해 언어에 영향을 주고 그 언어에의 영향이 다시금 행위, 혹은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믿는, 언어와 생활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예 중의 하나이다. 은유적 언어가 가진 말힘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국인이라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굳이 미역국을 아침 식사로 먹으려 하거나 차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은유가 가진 긍정적인 힘에는 비교적 무관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태도는 달라진다는 것은, 다시금 언어가 생활 속에서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행사하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보게끔 만드는 예이다. 특히 은유는 인간이 언어를 통해 세계를 파악하고 인식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어떤 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루디 켈러 Rudi Keller는 은유를 만들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언어능력 중에서

도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¹⁾ 심지어 은유는 더 이상 수단이 아닌 삶, 그 자체인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최근의 은유 연구에 있어 중요한 동향 중의 하나는 “은유적 표현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과 실제 담화에서 은유적 표현을 명시하는 것”²⁾이다. 왜 실제 담화 맥락에서의 은유를 분석하는 방식과 과정이 중요시되는가 하는 가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 이유는 자명하다. 실제 사용되는 텍스트나 담화 맥락 속에서의 은유가 아니라면 그 은유를 분석하는 것은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이지 언어연구의 목적에서라고 보기는 힘들다. 중고등 학교에서 은유를 배운 학생이었다면 은유와 직유를 구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예문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예문 1-1. 그녀의 눈은 호수와 같다.

예문 1-2. 그녀의 눈은 호수이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예문 1-1은 직유이고 1-2는 은유의 대표적인 예로 사용된다. 이러한 학습법의 영향으로 인해, 은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근 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의 관계를 비교에 의해 서술하지 않고 예문에서와 같이 등가로 놓는 표현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앞으로 설명할 예문 중 일부인 “zum offenen Schlagabtausch zwischen Deutschland und den USA”에서 Schlagabtausch가 은유적 표현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다소 의아해 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혹은 같은 어휘가 상이한 맥락에서 쓰였을 때 은유로 사용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도 대부분의 언어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판단 하기에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Die Fähigkeit, Metaphern zu bilden und Metaphern verstehen zu können, ist ein wesentlicher Teil der menschlichen Sprachkompetenz“(Keller 1996: 86)

2) “One of the major developments in metaphor research in the last several years has been the focus on identifying and explicating metaphoric language in real discourse.” (Pragglejaz Group(2012: 73)

은유는 언어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수용자의 판단에 의해 그리고 맥락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창조적인 언어사용 영역이다. 이것이 은유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이 어려운 이유이고 또한 반드시 구체적인 사용 맥락에서 연구되지 않는다면 연구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이유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은유 연구의 시작을 구체적 맥락 속에서의 은유를 이해하고 규명하는 과정으로 보고 텍스트 맥락 속에서 사용된 은유를 인식하고 구분하며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Praggeljaz Group(2012)의 은유 인식 과정 즉 MIP(Metaphor Identification Procedure)에 대해 설명하고 여기에서 제안된 은유 인식과정에 따라 한국어와 독일어 텍스트에 사용된 은유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텍스트 맥락에서의 은유에 대한 연구가 이 방법론에 의해 객관성을 유지하며 명확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방법론에 의한 은유 분석의 문제점과 미비한 점을 밝히며 계속 연구과제의 대상을 밝히고자 한다.

I.1. 은유를 알아보기

은유는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고 있을까. 막연히 많이, 자주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어느 정도의 빈도수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첫째, 은유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둘째, 사실상 그러한 연구가 시도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빈도에 대한 통계 및 개관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어휘가 포함된 텍스트를 분석해야 하며 가능하면 상호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명의 수용자의 판단을 분석해야 한다는 연구 상의 어려움 때문이다. 은유가 어떤 맥락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사용되는지, 어떤 텍스트에서 더욱 많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논의 대상들을 연구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보다 명확하고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며 비교적 다양하고 많은 텍스트의 은유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절실히 요

구되는 이유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은유 결정 방식, 혹은 은유 알아보기 방식을 사용해서 은유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본 논문에서는 Pragglez Group(2012)의 은유 결정 방식에 대한 제안을 소개하고 이 방식에 따라 한국어와 독일어 텍스트를 분석하는 시도를 하는 한편, 상호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언어학자와 일반인들에게 이 방식에 의해 은유를 분석하게 하여 그 결과를 놓고 이 방식의 타당성 여부와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Pragglez Group(이후 PG)은 Peter Crisp, Raymond Gibbs, Graham Low 등 9명의 연구진을 핵심으로 하는 그룹으로서,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담화 맥락 안의 은유를 분석하여 은유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은유인식절차를 고안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 상호 협력 연구를 통해 그들이 고안한 방법론의 유효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PG가 고안한 MIP(은유확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인 의미파악을 위해 전체 텍스트-담화를 읽는다.
2. 텍스트-담화에서 어휘적 단위를 정한다.
3.
 - (a) 텍스트의 각각의 단위에 대해 그들이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즉, 각각의 텍스트단위들이, 텍스트에 의해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어떠한 개체, 관계 혹은 속성들에 해당하는지 (맥락적 의미)를 파악한다. 어휘적 단위 이전과 이후에 쓰인 말들을 함께 고려한다.
 - (b) 각각의 어휘 단위에 대해서 그것이 주어진 텍스트 외의 다른 맥락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연구목적 하에서 기본적 의미란 다음과 같은 경향을 가진 것으로 본다.
 - 더 구체적: 그들이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보다 더 쉽게 상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쉽게 냄새 맡을 수 있고 맛 볼 수 있다.
 - 신체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 보다 정교하다 (모호한 것과 반대되는 의미로)
 - 역사적으로 더 오래되었다.

어휘적 단위가 갖는 기본적인 의미라고 해서 반드시 더 자주 사용되는 의미인 것은 아니다.

(c) 만일 어휘적 단위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될 때에 주어진 맥락에서보다 현재 더 기본적으로 현재 통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문맥상 의미가 기본의미와 상이하지만 비교해서(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한다.

4. 만일 그렇다면 그 어휘 단위는 은유적인 것으로 보라.

당연하게도 이 은유인식절차는 매우 단순화 되어 있고 은유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다 포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전히 수용자의 직관에 의존하고 있다. 문학 작품에 사용되는 은유나 죽은 은유를 구분하는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객관성 혹은 명확성을 보장해 주는, 비교적 단순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은유 분석의 틀로서는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MIP를 이용해서 한국어와 독일어 텍스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발췌한 텍스트를 포함한 전체 텍스트를 부록으로만 제시하고 본문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그 중 극히 일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II. 실제 사용된 텍스트의 은유 분석

II.1. 한국어의 예

다음에 제시된 예문은 2014년 월드컵 경기가 진행 중이던 7월 9일 현재 인터넷 신문 마이데일리지에 실린 독일과 브라질의 경기에 관한 기사³⁾ 중 일부 텍스트이다.

3) <http://sports.media.daum.net/sports/wc/brasil/newsview?newsId=20140709065110245> 참조.

예문 2.

‘7골 폭격’ 독일, 월드컵 사상 4강전 최다골 승리

독일이 브라질을 상대로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며 브라질월드컵 결승행에 성공했다.

위의 예문을 MIP의 방법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단계. 전체적인 의미 파악 - 전체 텍스트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4강전에서 독일이 브라질을 상대로 7-1의 점수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예문 텍스트를 다시 읽어 보면, 텍스트가 월드컵 경기에서 독일과 브라질의 승부와 관련해 작성되었다는 것, 그리고 특히 독일이 브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골을 기록했다는 내용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 텍스트-담화에서 어휘 단위 결정하기

예문 텍스트의 어휘 단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한국어에는 PG가 예시했던 영어 예문과 달리 여러 가지 형태소가 한 어휘 안에 융합되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어휘가 하나의 어휘로 융합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 문법적 형태소는 따로 어휘 단위로 분류해서 결정하지 않았다. 두 개 이상의 어휘가 융합되어 이루어진 어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원 텍스트의 띄어쓰기나 맥락으로 비추어 한 어휘로 파악 가능한 경우에는 단순히 하나의 어휘 단위로 보고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문장 부호도 텍스트에서 분명 유의미한 부분이지만 연구의 단계 상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7골/ 폭격/ 독일, 월드컵/ 사상/ 4강전/ 최다골/ 승리/

독일이/ 브라질을/ 상대로/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며/ 브라질/월드컵/ 결승행에/ 성공했다./

3단계 + 4단계.

1. 7골

- a) 맥락적 의미: 2014년 7월 7일, 월드컵 4강전에서 독일이 브라질을 상대로 성공한 골의 개수이다.
- b) 기본적 의미: 사전에는 7골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7과 골의 의미를 각각 찾아서 의미를 유추해야 한다. 사전적 의미로 골은 ‘축구나 농구, 핸드볼, 하키 따위에서, 문이나 바구니에 공을 넣어 득점하는 일. 또는 그 득점’으로 표기되어 있다.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는 일치한다.
은유적 사용 여부: 아니다.

2. 폭격

- a) 맥락적 의미: 상대팀의 골문에 공격하듯이 순식간에 많은 골을 넣은 상황.
- b) 기본적 의미: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려 적의 군대나 시설물, 또는 국토를 파괴하는 일.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텍스트의 맥락적 의미는, 독일이 무자비하다 싶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브라질 골문에 집중적으로 골을 넣은 상황을 폭격의 기본적 의미에 담겨 있는 대치 상황, 공격과 방어, 다발성, 심각한 피해, 파괴 등의 의미와 연관 지어 유추해낼 수 있다.
은유적 사용 여부: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

3. 독일

- a) 맥락적 의미: 이 텍스트 맥락에서 독일은 월드컵 경기에 참가해서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둔, 서유럽의 한 국가이다.
- b) 기본적 의미: 사전에 기록된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 “유럽 중부에 있는 나라. 843년에 동프랑크 왕국을 세워...[생략]”.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는 다르지 않다.

은유적 사용여부: 아니다.

4. 월드컵

a) 맥락적 의미: 2014년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 경기를 지칭한다.

b) 기본적 의미: 명사로서 스포츠 경기의 국제 선수권 대회. 또는 그 우승 컵을 말하며 1930년 이래 매 4년마다 열리는 축구경기가 대표적이다.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이 텍스트의 맥락적 의미는 기본적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 의미가 보다 포괄적이지만 맥락적 의미가 기본적 의미에서 벗어난다고는 볼 수 없다.

은유적 사용여부: 아니다.

5. 사상

a) 맥락적 의미: 1930년 이래의 월드컵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b) 기본적 의미: 명사로서 같은 말로는 역사상(歷史上)을 들고 있다. 역사에 나타나 있는 바라는 기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다르지 않다.

은유적 사용여부: 아니다.

6. 최다골

a) 맥락적 의미: 독일이 브라질과 벌인 4강전에서 월드컵 4강전 사상 가장 많은 골로 기록된 일곱 골

b) 기본적 의미: 구기 종목에서 문이나 바구니에 공을 넣어 득점하는 일 + 수나 양 따위가 가장 많음 => 구기 종목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공을 문이나 바구니에 넣어 득점하는 일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맥락적 의미는 기본적 의미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그 의미가 상이하거나 대조적인 것은 아니고 포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맥락적 의미는 기본적 의미가 맥락에 의해 특수화

된 것이다.

은유적 사용여부: 아니다.

7. 승리

- a) 맥락적 의미: 독일이 브라질과의 축구 경기에서 이긴 일
- b) 기본적 의미: 겨루어서 이김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는 다르지 않다.
은유적 사용여부: 아니다.

8. 독일이

- a) 맥락적 의미: 브라질월드컵 참가해서 4강에 오른 독일이
- b) 기본적 의미: 유럽 중부에 있는 나라, 서유럽의 주권국가 독일 + 주격의 의미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맥락적 의미는 기본적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르지 않다.
은유적 사용여부: 아니다.

9. 브라질을

- a) 맥락적 의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해서 4강전을 벌인 브라질을
- b) 기본적 의미: 남아메리카 동부에 있는 연방 공화국 + 목적격의 의미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맥락적 의미는 기본적 의미 속에 포함되는, 즉 함의 관계에 있으므로 두 가지 의미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은유적 사용여부: 아니다.

10. 상대로

- a) 맥락적 의미: 월드컵 4강전의 대상으로 맞이하여
- b) 기본적 의미: 서로 겨룸. 또는 그런 대상 +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로서’가 줄임 형태로 쓰인 조사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는 다르지 않다.

은유적 사용여부: 아니다.

11. 역사적인

- a) 맥락적 의미: 월드컵 사상 유래가 없어 기록에 남을 만큼 두드러지는
- b) 기본적 의미: 역사에 관한. 또는 그런 것. 역사로서 기록될 만큼 중요한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맥락적 의미는 기본적 의미에 포함된다. 즉,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은유적 사용여부: 아니다.

12. 대승을

- a) 맥락적 의미: 브라질 월드컵 4강전에서 점수차가 큰 승리를
- b) 기본적 의미: 싸움이나 경기에서 크게 이김 + 목적어의 의미를 갖는 조사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차이가 없다.

은유적 사용여부: 아니다.

13. 거두며

- a) 맥락적 의미: (4강전에서 승리를) 이루다, 달성하다.
- b) 기본적 의미: 곡식이나 열매 따위를 수확하다. 흩어져 있는 물건 따위를 한데 모으다.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승리를 이룬다는 의미의 ‘거두다’는 기본적 의미인 ‘수확하다’에 비해 보다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기본적 의미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의미파악을 할 수 있다.

은유적 사용여부: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

15. 브라질

- a) 맥락적 의미: 2014년 월드컵 개최국
- b) 기본적 의미: 남아메리카 동부에 있는 연방 공화국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맥락적 의미는 기본적 의미 속에 포함되는,

즉 함의 관계에 있으므로 두 가지 의미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은유적 사용여부: 아니다.

16. 월드컵

- a) 맥락적 의미: 2014년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 경기를 지칭한다.
- b) 기본적 의미: 명사로서 스포츠 경기의 국제 선수권 대회. 또는 그 우승 컵을 말하며 1930년 이래 매 4년마다 열리는 축구경기가 대표적이다.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이 텍스트의 맥락적 의미는 기본적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 의미가 보다 포괄적이지만 맥락적 의미가 기본적 의미에서 벗어난다고는 볼 수 없다.

은유적 사용여부: 아니다.

17. 결승행에

- a) 맥락적 의미: 결승전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일에
- b) 기본적 의미: 운동 경기 따위에서, 마지막 승자를 결정함 + ‘그곳으로 향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기본적 의미는 장소와 관련된 접미사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상대적으로 보다 추상적인 맥락적 의미와 차이가 있다. 맥락적 의미는 맥락을 통해 기본적 의미와의 관계 속에서 도출해낼 수 있다.

은유적 사용여부: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

18. 성공했다.

- a) 맥락적 의미: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뤄냈다.
- b) 기본적 의미: 목적하는 바를 이루다 + 과거를 의미하는 동사보조어간이 결합된 형태. 따라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다는 의미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다르지 않다.

은유적 사용여부: 아니다.

분석 결과 이 텍스트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된 어휘는 ‘폭격’, ‘거두머’, ‘결승행에’의 세 가지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시도하고 있는 은유 결정 방식에 따라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알 수 있었던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은유적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어휘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그것이 예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전에 기록된 의미도 매우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중 어떤 것을 기본적 의미로 채택할 것인가가 항상 명확한 과제는 아니었다. 또한 통상 은유적인 의미로 파악되는 의미가 이미 사전에서는 고정된, 관용화된 표현으로 여겨져서 기본적인 의미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본적 의미’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⁴⁾

II.2. 독일어 예문

이제 영어권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연구결정방법론이 한국어 외의 또 다른 언어, 독일어에 적용될 수 있는지 혹은 그 양상은 어떠한지를 다음의 독일어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예문3. 독일어 예문

Die Spionage-Affäre führt zum offenen Schlagabtausch zwischen Deutschland und den USA. Kanzlerin Merkel sieht die Vertrauensbasis erschüttert.

위의 예문을 앞서 분석한 한국어 예문과 마찬가지로 네 개의 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4) 이에 대한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은, 관용표현은 사전에 기입되었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은유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동일한 심사자의 의견에 의하면 기본의미에 대한 논의는 다의어인 경우 예외 없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하며, 본 논문에서 기본의미에 대한 성찰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1단계. 미국이 독일에 스파이활동을 해 온 것이 드러나자 미국과 독일이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단계.

Die/ Spionage-Affäre/ führt/ zum/ offenen/ Schlagabtausch/ zwischen/ Deutschland/ und/ den/ USA./ Kanzlerin/ Merkel/ sieht/ die/ Vertrauensbasis/ erschüttert.

3단계 + 4단계

독일어 텍스트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어휘 단위 구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으나 어휘단위에 관한 논의는 본 논문의 주된 쟁점도 아닐뿐더러 간단하게 결론을 맺을 수 없는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고자 한다. 다만 한국어 텍스트 분석과 마찬가지로 띄어쓰기 원칙에 의해 어휘단위를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의하면 모두 17개의 어휘를 분석하여 은유적 사용 여부를 파악해야 하나 본 논문의 지면상 제약에 따라 다음의 일곱 개의 어휘 단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⁵⁾ 기본적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사전은 Duden 임을 밝힌다.

1. Spionage-Affäre

- a) 맥락적 의미: 최근 미국이 독일에서 스파이활동을 한 것이 밝혀져 양국 간에 불화가 생긴 사건
- b) 기본적 의미: unangenehme Angelegenheit; peinlicher, skandalöser [Vor-, ...b. Liebschaft, Verhältnis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맥락적 의미는 상황에 의해 특수화 되어 기본적 의미에서 다소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 의미와 함의관계에

5) 이 일곱 개의 단어는 설문조사에 응한 피실험자들 중 한 명이라도 은유적인 사용이라고 판단할, 모든 어휘를 총괄한 것이다.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은유적 사용여부: 아니다.

2. führt

- a) 맥락적 의미: (스파이 문제가 양국 간의 비방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 b) 기본적 의미: jemandem den Weg zeigen und ...+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형임을 표시하는 동사어미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기본적 의미는 물리적, 구체적으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의미인데 맥락적 의미는 추상적인 상황이나 사태가 진행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맥락적 의미는 추상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 관계 속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은유적 사용여부: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

3. öffnen

- a) 맥락적 의미: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 b) 기본적 의미: so beschaffen, dass jemand, etwas heraus- oder hineingelangen kann; nicht geschlossen; geöffnet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닫혀있지 않은, 열린) + 형용사 어미(약변화 남성 Dativ)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맥락적 의미는 기본적 의미에 비해 추상화 되어 있는 한 편 맥락에 의해 특수화되어 있으며, 기본적 의미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그 의미를 추론해낼 수 있다.

은유적 사용여부: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

4. Schlagabtausch

- a) 맥락적 의미: (독일과 미국, 양국 간의) 비난과 공격의 연속
- b) 기본적 의미: schnelle Folge von wechselseitigen Schlägen
-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맥락적 의미는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기본적 의미와 같지 않으며, 기본적 의미와의 관계 속에서 유추해낼 수 있다.

은유적 사용여부: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

5. sieht

a) 맥락적 의미: (메르켈 총리가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b) 기본적 의미: 1. mit dem Gesichtssinn, mit den ...2a. den Blick irgendwohin richten, gerichtet ...+ 주어가 3인칭단수, 현재형임을 나타내어 주는 어미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기본적 의미는 맥락적 의미에 비해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맥락적 의미는 이 기본적 의미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 낼 수 있다.

은유적 사용여부: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

6. Vertrauensbasis

a) 맥락적 의미: (독일과 미국 양국 간의) 신뢰의 기반

b) 기본적 의미: Vertrauensverhältnis

(als Voraussetzung für eine Kommunikation, Zusammenarbeit o. Ä.)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신뢰의 기반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 매우 흔하게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Basis가 가지고 있는 보다 기본적인 의미인 (물리적) 기초, 토대라는 말을 근거로 관계 속에서 유추해서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 기본적 의미와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은유적 사용여부: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

7. erschüttert

a) 맥락적 의미: (신뢰의 기반)이 견고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b) 기본적 의미: in zitternde, wankende Bewegung bringen + 과거분사의 의미

c) 맥락적 의미와 기본적 의미: 맥락적 의미는 기본적 의미와 다르며, 보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기본적 의미로부터의 관계에 의해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은유적 사용여부: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어로 작성된 텍스트에서 모두 17개의 어휘 단위 중 여섯 개의 어휘단위가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앞서 분석한 한국어 텍스트의 예에서 18개의 어휘 단위 중 세 개의 어휘가 은유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분석결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는 차이가 보이지만 대체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⁶⁾ 이 연구 결과로는 텍스트에서의 은유 사용, 은유 분석에 대해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 어떤 텍스트에서 은유가 많이 사용되는지, 어느 정도의 빈도로 사용되는지, 은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I.3. 상호주관성의 확보

이 연구에서는 사실 은유를 결정하는 연구자의 자의성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연구자 혹은 언어사용자들의 은유에 대한 판단을 연구에 포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Praggeljaz Group은 실제로 여러 명의 연구자가 동일한 텍스트를 보고 그들이 합의한 기본의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상황에서 맥락의미를 파악하여 각 어휘의 은유적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다시

6) 이 연구에서는 단지 두 개의 예문만을, 그것도 대표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무작위로 추출된 예문에 나타난 은유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결과에 큰 의미를 둘 수 없음을 분명하다.

분석하고 있다. 본고에서 기획한 연구에서는 연구의 한계 상 그리고 지면의 한계 상 Praggeljaz Group에서 시도한 정도의 상호주관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본고의 저자 이외의 다섯 명에게 은유에 대한 그들의 직관과 판단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에서는 이 실험에 참여한 다섯 명의 피실험자들이 본논문의 은유 판단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과 듣고 나서 텍스트 안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된 어휘를 판단한 결과를 기록하였다. 두 번에 걸쳐 실험을 진행한 까닭은, 본논문에서 은유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이, 일반적인 언어사용자가 판단하는 은유에 대한 생각과 차이를 보이는가를 함께 연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 다섯 명은 모두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이나 독일어를 학습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원어민 화자는 아니지만 독일어를 능숙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갖추고 있다. 실험1에서는 실험의 이유와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로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은유 개념에 따라, 각 텍스트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어휘를 표시하게 하였다. 실험2에서는 이 실험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본 논문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은유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설명한 뒤, 그 기준에 의해 종전의 텍스트를 다시 한 번 읽고 거기에 쓰인 어휘의 은유적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다. 다음에서는 이 두 번의 실험결과에 의해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 어휘들만을 표에 기록하였다.

실험1

	텍스트1	텍스트2
피실험자1	폭격	Schlagabtausch, Vertrauensbasis, erschüttert
피실험자2	폭격, 4강전	Schlagabtausch, erschüttert
피실험자3	폭격	Schlagabtausch, Vertrauensbasis, erschüttert
피실험자4	폭격	Schlagabtausch
피실험자5	7골, 폭격, 사상	Schlagabtausch, erschüttert

실험2

	텍스트1	텍스트2
피실험자1	폭격, 월드컵, 사상, 4강전, 역사적인, 거두며, 월드컵, 결승행에	Spionage-Affäre, führt, offenen, Schlagabtausch, Vertrauensbasis
피실험자2	폭격, 거두며, 결승행에	Schlagabtausch, Vertrauensbasis, erschüttert
피실험자3	폭격, 사상, 역사적인, 거두며, 결승행에	offenen, Schlagabtausch, Vertrauensbasis, erschüttert
피실험자4	폭격	Schlagabtausch, erschüttert
피실험자5	폭격, 사상, 역사적인, 대승	Schlagabtausch, erschüttert

두 번에 걸친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어학 연구자가 아닌 일반적인 언어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유에 대한 판단기준이 본 연구에서 은유적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실험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텍스트1에서 사용된 은유를 한, 두개 정도로 파악했다. 본고에서 기준으로 하는 은유적 사용에 대한 판단근거를 인지한 상태에서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4,5개의 어휘를 다시 선택하였다. 텍스트2에 대한 판단은 텍스트1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기는 하지만 역시 어휘의 은유적 판단에 대한 평소 판단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언어직관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그 사용 빈도가 매우 높아 죽은 은유(Tote Metapher)에 속하는 경우, 혹은 역시 매우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은유보다는 숙어적 표현으로 이해되는 표현들에 대해 은유라고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학교에서 한국어 문법을 배울 때의 영향이라고 가정되는 것은, 한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 등을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설명을 통해, 동사도 은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 다음에야 비로소 은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어가 혼용되어 쓰이거나 복합어 등을 하나의 어휘

단위로 파악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 판단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 아닐까 가정할 수 있겠다. 넷째,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사용에서 은유가 지극히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언어사용자들이 그것이 은유적 표현, 혹은 은유적 언어사용이라는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⁷⁾

II.4. 은유의 인식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맥락, 텍스트 내에서 은유를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MIP를 채택하여 분석하고 피험자들에게 실험해 보았다. 연구 결과, 어문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피험자들도 실제로 사용되는 텍스트 안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된 어휘를 파악하고 그 사용 양상을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무엇보다도, 피험자들이 언어의 은유적 사용에 대한 언어학적인 판단 기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의 대답이 현저하게 달랐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판단 기준을 듣기 전 다섯 명의 피험자들은 텍스트1에 평균적으로 1.6개의 은유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텍스트2에 대해서는 2.2개의 은유적 표현을 찾아내었다. 본고에서 기준으로 하는 은유적 표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나서 다시 응답하게 한 결과 피험자들은 텍스트1에 대해서는 평균 4.2개, 텍스트2에 대해서는 평균 3.2개의 은유적 표현이 있다고 고쳐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어 텍스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은유를 찾아내는 반면, 독일어 텍스트에서는 은유적으로 사용된 어휘를 다 찾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 실험의 결과를 의미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에는 통계 자료가 심각하게 부족하지만, 은유에 대한 판단과 직관에 있어서 모국어 화자의 언어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다.

7) 여기 밝힌 네 번째 원인에 대해서는 익명의 심사자의 성찰을 참고한 것이며, 정확한 지적에 대해 감사드린다.

위의 실험에서 피험자들이 설명 전과 후에 판이한 태도를 보인 이유 중 하나로 은유적 사용에 대해 다소 제한된 개념으로 은유를 한정시켰던 교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A는 B이다”와 “A는 B와 같다”라는 형식을 통해 은유와 직유가 구분된다고 배웠던 기억으로 인해 처음 은유를 공부할 때에 혼란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투사개념을 기본으로 한 이러한 은유 결정 방식은 문장 중에서 은유를 파악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피험자들이 명사만을 은유적 용법으로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실제로 다섯 명의 피험자들은 설명 후에 “역사적인, 거두며, 결승행에” 등 세 개의 비명사적 어휘가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선택하였다. 설명을 듣기 이전에 텍스트1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어휘는 예외 없이 모두 명사였다. 반면 텍스트2에 대한 판단에서는 분사인 *erschüttert*는 설명을 듣기 전에도 은유적 사용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흥미롭다. 설명을 듣고 난 후에는 *führt*, *offenen*도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응답한 피험자들이 있었다. 모국어와 외국어에 대한 판단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후속 연구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한 방식에 의해 은유를 분석한다면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논의할 수 있다. 우선, 언어의 사용에 있어 가장 모호하고 다의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분야를 분석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보다 풍부하고 보다 견고한 이론적 근거를 갖춘 후속 연구라 할 것이다.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 분석 방법론이 보다 정교해 진다면 대량의 텍스트를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유사 주제에 관한 텍스트 자료를 모아 말뭉치 자료를 구축한 다음 본고에서 사용한 분석 방식에 의해 어떤 단어가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알아낼 수 있다. 다음 단계로 유사한 내용과 형식의 텍스트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은유적 표현들을 모아 마킹하여 그들이 실제로 구체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분석한다면, 지금까지 언어외적인 혹은 광범위한 맥락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방식으로만 해석할 수 있었던 은유적 표현들에 대한 기계적이

고도 객관성을 갖춘 분석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음말

담화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본 연구의 한계 혹은 문제점으로서 지적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의 단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영어와 달리 우리말에서는 이미 정해진 어절을 중심으로 분석단위를 정하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예컨대 브라질월드컵이라는 단어 전체를 그것이 하나의 어절로 쓰였다는 이유로 하나의 분석 단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브라질과 월드컵이라는 어휘를 각각 개별적인 단어로 볼 것인지를 문제는 맥락에 따라서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굴절어인 영어와 달리 교착어인 우리말의 특성 상 전치사가 한 어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함께 분석하는 단위로 볼 것인지를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되도록 단순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 어휘별로 분석하여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는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지만, 실제 분석과정에서는 이 작업이 그렇게 예상만큼 ‘단순하고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의 어휘, 본고에서 말하는 단위 어휘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은유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명백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서 텍스트 전체의 의미, 맥락과의 상관관계,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를 둘러싼 관계와 세상지식 등 다양한 요소를 배제하고 개별 어휘를 분석하는, 이른바 아래에서 위로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식이 텍스트 분석에 적합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어떤 면으로 보면 앞서 지적한 첫 번째 문제점과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분석의 단위를 결정함에 있어 형태소의 문제에 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PG의 연구는 영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독일어나 한국어의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형태소와 관련한 문제는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의 경우 조사가 독일어의 불변화사나 영어의 부사어 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하자면 이들 조사들은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적 단계 상 그러한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잠정적으로는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어휘 단위를 분석단위로 구분하였음을 밝힌다.

넷째로, 언어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며 그 정의와 개념이 빠른 속도로 변화, 확장되고 있는 은유에 대한 설명이 몇 십 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는 현재의 학교 교육에 대한 제고나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해 후속 연구를 통한 풍부한 연구결과가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섯 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은유 판단 실험에 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험 대상으로서는 적은 숫자의 대상인원이라는 문제점이 무엇보다도 두드러진다. 또한 독어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독어독문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피험자들이 독일어 은유를 대하는 자세는 일반적인 독일어 사용자 혹은 학습자의 언어직관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을 많이 해결하지 못한 채로 맺음하게 되었으나, 무엇보다도 은유에 대한 직관을 개발하고 상호주관성을 보장하며 대량의 텍스트를 다룰 수 있는 연구를 모색할 수 있는 출발로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텍스트를 다루어 보다 객관적으로 텍스트 내의 은유를 인식하고 은유의 구조를 밝혀내는 체계적인 은유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록1 - 한국어 텍스트 전문⁸⁾

독일은 9일 오전(한국시각) 브라질 벨루호리존치서 열린 브라질과의 2014 브라질월드컵 4강전서 브라질에 7-1로 크게 이겼다. 그 동안 월드컵 4강전서 6-1 승부는 3차례 나온 기록이 있다. 독일의 4강전 7골은 월드컵 역사상 처음이다. 또한 독일은 서독 시절인 지난 1954년 월드컵 4강전서 6골을 터뜨린 이후 60년 만에 월드컵 4강 무대서 7골을 성공시키는 폭발적인 화력을 과시했다.

독일은 브라질을 상대로 전반 11분 뮐러(바이에른 뮌헨)가 선제골을 터뜨린 후 전반 23분 부터 6분 동안 클로제(라치오) 크로스(바이에른 뮌헨) 케디라(레알 마드리드)가 4골을 몰아 넣어 일찌감치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전반전 동안에만 5골을 성공시켜 브라질 수비진을 초토화시킨 독일은 후반전 들어 쉬얼레가 멀티골을 기록해 역사에 기록될 대승을 장식했다.

독일 공격진이 브라질 골문을 초토화 시킬 동안 브라질 수비진은 무기력하게 상대 공격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독일은 뮐러, 크로스, 외질, 클로제 등이 브라질 페널티지역에서도 2대1 패스 등으로 완벽한 슈팅 기회를 만들어낸 반면 다비드 루이스(첼시) 마르셀루(레알 마드리드) 등이 주축이 된 브라질 수비진은 상대 공격을 지켜만 봐야 했다. 또한 뮐러의 선제골 상황과 크로스의 4번째 득점 장면에선 위험지역에서 슈팅을 하는 상대 선수에 대한 마크를 하지 못하면서 완벽한 슈팅 기회를 내주기도 했다.

자국에서 열린 브라질월드컵서 통산 6번째 월드컵 우승을 노렸던 브라질은 참패를 당하며 꿈이 무너졌다. 반면 독일은 지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우승 이후 24년 만의 월드컵 우승을 노리게 됐다. 특히 최근 월드컵 4회 연속 4강에 진출하며 꾸준한 성적을 냈던 독일은 브라질월드컵 4강전서 역사에 기

8) <http://sports.media.daum.net/sports/wc/brasil/newsview?newsId=20140709065110245>.

록될 대승을 거두며 결승진출에 성공했다.

부록2 - 독일어 텍스트 전문⁹⁾

Die Spionage-Affäre führt zum offenen Schlagabtausch zwischen Deutschland und den USA. Kanzlerin Merkel sieht die Vertrauensbasis erschüttert. Die US-Regierung kritisiert hingegen die heftigen deutschen Reaktionen (2014.07.13 독일 Deutsche Welle 공식 홈페이지)

9) <http://www.dw.de/merkel-not-amused/av-17781900>.

■ 참고문헌

- Pragglejaz Group(2012): MIP: a method for identifying metaphorically used words in discourse. In: Hanks, Patrick/Giora, Rachel(edt.)(2012), 73~112.
- Hanks, Patrick/ Giora, Rachel(edt.)(2012): Metaphor and Figurative Language Vol.VI, Routledge.
- Johnson, Mark(1987):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ürgen Felix(2002): Moderne Film Theorie, Mainz: Bender.
- Keller, Rudi(1997): Der metaphorische und metonymische Prozeß, In: 독일어 문화권연구 | 6권, 86~97.
- Kövecses, Zoltán(2005): Metaphor in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동환 역(2009): 은유와 문화의 만남 - 보편성과 다양성, 연세대학교 출판부.
- Lakoff, George(1993)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In: Ortony (1993b), 202-251.
- Lakoff, George & Mark Johnson(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ovikova, Anastasia(2012): Metaphern beim Sprachenlernen. In: Junge, Matthias (Hrsg.), Metaphern und Gesellschaft - Die Bedeutung der Orientierung durch Metaphern. Wiesbaden: Springer, 87 - 103.
- Steen, Gerard(2007): Finding Metaphor in Discourse: Pragglejaz and Beyond, In: Cultura, Lenguaje Y Representación/ Culture, Language and Representation VOL. V, pp. 9-25
- <http://www.duden.de>

Zusammenfassung

Zur Analyse von Metaphern im Text

Lee, Soyoung (Kyonggi Uni)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Metaphern in einem konkreten Text analysiert. Dabei wird vor allem erörtert, wie man Metapher in einem gegebenen Kontext erkennen und analysieren kann. Um dieses Ziel zu erreichen, wird in der vorliegenden Forschung das sogenannte ‚MIP(Metaphor Identification Procedure)‘ herangezogen. Das MIP schlägt einen vierstufigen Prozess vor, den man bei der Entscheidung benutzen kann, ob eine verbale Einheit metaphorisch gebraucht worden ist:

1. Zuerst lies das Text, um den ganzen Text zu verstehen.
2. Identifiziere die verschiedenen verbalen Einheiten im Text.
3.
 - (a) Begreife die kontextuelle Bedeutung jeder sprachlicher Einheit im Text.
 - (b) Prüfe, ob diese sprachliche Einheit eine elementarere Bedeutung hat.
 - (c) Wenn diese sprachliche Einheit in einem anderen Kontext eine elementarere Bedeutung als im gegebenen Kontext hat, und die Bedeutung im vorliegenden Konterxt unter Bezugnahme auf diese elementare Bedeutung verstanden werden kann,
4. dann bezeichne die Einheit als metaphorisch.

Mit dieser Methode wird versucht, eine sprachliche Einheit in einem konkreten Kontext als metaphorisch oder nicht metaphorisch zu bezeichnen.

Das erfordert auch einen intersubjektiven Erkenntnisprozess, womit wir das Problem bzw. die Schwäche von MIP bewältigen können. Um die Intersubjektivität zu gewinnen, werden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fünf Versuchspersonen gebeten, zwei Text zu lesen und zu beurteilen, ob die einzelnen sprachlichen Einheiten metaphorisch gebraucht werden oder nicht. Die Versuchspersonen geben zuerst ihre Urteile ab, ohne sich über das MIP informieren. Danach wird den Personen mitgeteilt, wie das MIP funktioniert. Nach der Erläuterung haben die Versuchspersonen die sprachlichen Einheit anders bezeichnet als früher. Daraus kann gefolgert werden, dass das MIP schließlich nicht nur als Urteilsmethode der Metapher, sondern auch als Erziehungsprogramm der Metapher fungiert.

주제어: 텍스트, 대화, 은유, 텍스트 분석, 맥락

Schlüsselbegriffe: Text, Diskurs, Metapher, Textanalyse, Kontext

필자 E-Mail: balkon@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4. 10. 20, 논문심사일: 2014. 11. 18, 게재확정일: 2014. 11. 25.